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초등과정 : 정아영, 화진지
고등과정 : 옥정민, 진시우, 정이안, 화진의
대학과정 : 채경훈, 김재호
- 제 19회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졸업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16일(일), 17일(월)에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멋쟁이학교 6학년 졸업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6 호

2025년 2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삶의 진정한 묘미

얼마 전 어린이학교 6학년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학교는 매년 10일정도 해외로 졸업여행을 갑니다. 어린이들에게 삶을 경험하게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경험을 하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행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아보는 것이지요. 어린이들은 함께 여행하며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다투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기 중에도 여행을 다니지만 졸업여행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들이 하루씩 가이드 하는 날을 맡아 한국에서부터 길을 조사하고 가는 곳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갑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가지지만 선생님들은 안전을 위한 가이드 정도만 할 뿐 그 날을 책임 맡은 어린이의 안내에 따라 하루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맡은 날이 되면 책임 맡은 어린이는 무척 긴장을 하고 예민해집니다. 찾아 놓은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시간이 지체되어 일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여행을 즐겨~ 여행의 진짜 묘미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뜻하지 않은 만남과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즐거운 순간과 추억들을 종종 남기게 된다는 것어요.

며칠 전 가까운 목사님의 SNS에서 무속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분의 증언이 국민일보에 실렸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찾아 오던 고객 중 4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목회자 가정도 있다는 글을 보며 무속화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미래의 모습을 걱정하는 글이었

습니다. 실제로 TV나 SNS와 온라인 매체,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통해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연말 연초나 선거철, 입시철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곤 합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많은 20~30대 젊은이들이 노년층보다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거리에 타로와 사주를 보는 곳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것은 불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여 좋은 것은 얻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려고 하지요. 나라와 경제가 불안하고 개인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한편으론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와 평안함을 전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한 해를,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할까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특별히 다음 과정으로의 진학을, 사회로의 진출을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순간순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묘미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신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하며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한주간 말씀

“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
<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께 가까이 /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기도 : 이윤희 권사

성경 : 창세기 36장

제목 : 믿음의 역사에서 끊어진 에서

1. 내용: 에서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번성하였다 (What)

<문단구분>

1~8절 세일 산으로 옮긴 이유

9~14절 에서의 아들들

15~30절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

31~39절 에서에게서 나온 왕들

40~43절 지방의 족장이 된 자손들

2. 의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성공을 선택하였다 (Why)

1) 에서의 가나안 출신 세 아내의 영향이 컸다.

2) 야곱을 떠나고 이후에 완전히 멀어졌다.

3)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족보에서 끊어졌다.

3. 적용: 언약 안에 머무르자 (How)

1)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자

2)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자

성서일기

사랑할 준비

안녕하세요. 미리내사랑방 이어직 집사입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저번주에 사랑방공동체가 개편되며 느낀 것을 잠시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사랑방공동체가 개편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고생하셨던 집사님들께서 대부분 환갑에 가까우시거나 넘으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보살핌을 받은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어렸으니깐요.^^

갓난아기, 꾸러기, 어린이, 푸른꿈 등을 걸치면서 항상 보살핌을 받아왔습니다. 먹여주시고, 여행 보내주시고, 같이 운동하며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살핌 받아왔습니다.

이쯤되니 제가 서른이 넘어가면서 저를 보살펴주신 교회 어르신들께서 한나둘씩 환갑을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죠. '아. 이제 내가 대접하고 봉사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요즘 교회 활동에 부지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럴때마다 예전에 노력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을지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90년대 직장생활 등을 겪으신 어른들께 비할바는 아니지요.

저는 우리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대접을 받아서? 보살핌을 받아서? 정확하게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교회 소속이면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 사역공동체 다음 임원은.... 네.... 아마 저 일 것 같습니다. 현 임원이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사랑할 준비를 말이지요 ^^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34 : 17-20
3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357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창세기 37 : 12-28 설교자
401 그루터기사랑방
“ 고난이 주는 유익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2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김영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각 과정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졸업생들은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출발하게 하시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고난이 주는 유익

요셉의 고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꿈 꾀 이 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았습니 다. 화목해야 할 가정 안에서 형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어려운 관계에서 지냈습니 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꿈 덕분에 요셉은 마음이 꺾이 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 다.

고난의 시기 요셉이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 려운 고난입니다. 형제들의 손으로 노예로 팔려버리고 하지도 않은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충 실하게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정작 요셉이 원 하는 일들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고난의 유익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 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 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고난 속에서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요셉 이 당한 고난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구원할 실력을 키워주었 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사람을 성숙으로 이끽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겨울방학 동안 부쩍 자란 꾸러기들이 노는 소리가 자연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교에 오면 언제나 그랬듯 달려와 선생님들을 안으며 인사하고 옷과 가방정리는 뒷전이고 친구들 먼저 살펴봅니다.

사방치기 실력이 늘어 이제 자기땅을 만들 줄도 압니다. 이 겨울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 놉니다. 밥도 반찬도 맛있게 즐겁게 잘 먹고 요리선생님께 이것 저것 맛있다고 인사도 합니다. 다음주에 있을 록이 생일잔치를 준비하는데 카드를 쓱쓱 만들어냅니다. 카드 하나를 만드느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여러 작업을 하면서도 힘들어 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며 자기가 만든 카드에 만족해합니다. 큰 블럭으로 집을 만들고 버려진 종이 상자들로 TV랑 컴퓨터랑 살림살이들이 만들어 집을 채우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놉니다. 책을 읽을 때도 전보다 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눈이 내린 목요일 하교시간이 되자 눈 때문에 집에 못 갈 것 같아 잘 되었다고 오늘은 집에 가지말고 여기서 함께 자자고 이야기하는 꾸러기도 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 주 중에 유난히 춥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급기야 눈이 펄펄 내린 날, 그 날은 목요일이었고 어린이 겨울방학을 마무리하고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동그라미와 네모의 온풍기를 켜두십니다. 이 날도 어김없이 어린이들이 추울까 염려하시며 일찍부터 온풍기를 켜두셨건만 날이 얼마나 추웠던지 실내 온도가 참 더디게 올라갔어요. 그래도 어린이가 모이면?!?! 열기가 생깁니다. 공동체 마당에 생기도 더하구요. 수다와 웃음이 넘쳐납니다. 모두 어린이의 에너지 덕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친구들은 방학과제 검사를 받을 때는 좀 긴장하지만, 6학년들이 졸업여행에서 사온 선물과 간식을 나눌 때는 즐겁습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윗놀이, 금요일 오전에는 졸업여행 보고회와 1, 2월 생일축하, 금요일 오후에는 졸업식 예행연습과 영화 감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학교 시계는 참 빨리 돌아요. 그래서 금새 다가온 금요일 닫는 모임 시간. 먼저 희비가 엇갈린 방학과제 시상식이 있었고, 섭섭하기 그지 없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급학교로 떠나는 9명의 6학년들과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소리, 수현이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또 계속 응원하겠지요.

어제 토요일에는 6학년 친구들과 가정에서 준비하신 사은회가 있었습니다. 사은회 이야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좀 간직할게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멋쟁이들의 반가운 미소와 기대감을 억누를 순 없었습니다. 봄학기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멋쟁이들이 등교했고, 그 간의 회포를 풀듯이 재잘재잘 수다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학기는 학과목 학습에 집중하는 시기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멋쟁이, 해외과정을 준비하는 멋쟁이 등 학년별로 특색있는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몰두하는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일까요? 멋쟁이들의 먹성이 크게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더 먹으려는 멋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더구나 졸업식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6학년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선후배간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남은 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선배와 후배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사은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가슴 뭉클한 한 때를 함께 추억에 새겨놓았습니다. 이제는 곧 졸업식입니다. 모두가 멋진 모습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졸업하는 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졸업,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공동체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사랑방공동체의 많은 힘을 학교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시대를 앞서 기독교대안학교를 시작할 때 시대와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문화와, 경제 발전, 사회 문제 현상과 학생, 부모님들의 성향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나 세상과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가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꾸러기학교에는 교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공동체학교 학생 대다수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공동체학교를 통해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양육하고, 교육선교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비중은 이제 후자에 훨씬 힘을 쏟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졸업은 오랜 시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복음의 씨앗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입니다. 사랑방공동체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비록 눈에 보이게 우리 안에서 모두 발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 하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에서 할 것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은 누나들이 꾸러기학교를 다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입니다. 아가였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꾸러기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6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꾸러기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한 곳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함께 지낸 행복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젠 멋지게 성장한 친구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냅니다.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419장, 435장

성경 : 창세기 18장 16~19절

말씀 :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 북한병사들> 즉각 전쟁이 그치고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사들을 파병하여 더이상 북한의 젊은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다음세대 >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젊은이들에게 잘 전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졸업과 입학 등 학교 행사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2) 독감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수술 후 회복중인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강력한 한파와 많은 눈이 내렸지만, 공동체는 무사히 이 마지막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각 시설들을 돌아보며 동파를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지체들 덕분에 아직까지 별 탈 없이 한파를 지나고 있습니다.

멋쟁이학교가 봄학기 개학을 하면서 저녁 식사준비를 공동생활 식구들이 다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니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실감납니다.

별탈 없이 겨울의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